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18 년 9 월 22 일 오늘 16 시 45 분에

알바노 라지알레에서

우리 **GABRIELLA MARIA GIULIANA BETTEGA** 수녀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91 세 65 년간 수도생활

전례 안에서 시편 선창자와 함께 주님 , 생명의 빛 안에서, 당신 앞에서 기뻐하리이다. 하며 노래하도록 초대하던 날에 선한목자께서는 교회와 수도회의 필요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쁘게 자신의 병을 봉헌했던 율리아나 수녀님을 당신께 부르셨습니다.

Bettega Gabriella 는 7 남매중 5 째로 프리미에로의 트란스아쿠아 (Bettega Gabriella) 에서 1927 년 8 월 28 일에 태어나 1927 년 9 월 4 일 고향의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진출해 있는 빠스또렐레를 통하여 수도회를 알게 되었고, 1948 년 9 월 27 일 Acque 의 성 베드로 공동체로 입회했습니다. 1953 년 10 월 7 일 마사 마르타나에서 피정 후에 빠스또렐레 첫 수녀들과 함께 복자 알베리오의 손에 공적으로 단순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53 년 6 월 12 일에 루시아(RO)에서 발한 사적서원의 날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서원으로 가브리엘라는 마리아 율리아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첫서원 후에 루시아 Lusìa (RO) 에 다시 돌아온 율리아나 수녀님은 처음에는 유치원의 실습생으로 소임을 받고, 후에는 교사가 됩니다. 교직의 직무를 여러 지역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1959 년 알카모, 1960 년 짓제리아, 1965 년 체르비아, 1967 년 다시 루시아에서 수행합니다. 율리아나 수녀님은 여러 본당에서 특별히 사목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1966 년 Cittaducale , 1970 년 Montesilvano Marina, 1974 년 Pescara “Madonna del Fuoco 그리고 이듬해 계속해서 같은 도시의 Angeli Custodi 공동체에서, 1983 년 Statte, 1984 년 Reggio Calabria, 1985 년 Albano Laziale –

Casa Madre 에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2000 년도에는 모원 공동체에서 현관담당으로서 마지막 까지 커다란기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울리아나 수녀님은 기쁨, 환대, 항상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고, 교회와 수도회의 삶에 깨어있는 수녀로서 표현됩니다. 전례를 사랑했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여러 본당에서 사목사도직을 관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울리아나 수녀님은 모든 우리 선교사들의 현존에 대해 기뻐하고, 특별히 중국 선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며 기도와 희생으로 동반했습니다. 우리 수도회의 초창기 때 자신의 경험을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에게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였습니다.

1971 년 Montazzoli 의 본당신부 Nicol 은 울리아나 수녀님이 사목에 임했던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사목 활동을 도와 주도록 마리아 울리아나수녀를 Montazzoli 에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기쁘게 감사를 표현하기위해 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열매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울리아나 수녀님이 아직도 계속해서 예민한 식물들을 돌보고 씨를 잘 뿌리기위해 Montazzoli 에 돌아 올 것이라고 자주 믿습니다. 수녀님이 떠난 지금, 모두는 수녀님을 그리워하며 수녀님이 항구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청합니다.”

7 월에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울리아나 수녀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수도회와 성소자들을 위하여 봉헌하며, 기도하면서 대범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한목자께 자신을 내어 놓으며, 평온하게 자신을 돌보는 작은 손길에도 감사하였습니다. 어머니 품안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성모님이 자신을 팔로 안고 보호하는것을 알고 관상하였습니다.

울리아나 수녀님의 성소와 삶에 대해 선한목자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인 교회가 시험의 시기에 있는 이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향과 창립 80 주년을 맞이하는 수도회의 여정을 우리의 이 “초창기” 수녀님께 전구를 청하며 의탁합니다. 또한 울리아나 수녀님에게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신 모원의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민따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수녀
총 원 장

2018 년 9 월 22 일 카시아스 도 술에서